



임상지표

치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치매' 적정성평가는 인구고령화 심화로 치매 환자 및 관리비용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제공을 유도하여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치매 부문은 '적정성 평가' 세부지표별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1년 평가개요 |

- 평가대상 : 신규 치매 외래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대상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3월
- 종합점수 : 90점
- 평가등급 : 1등급(90점 이상)

01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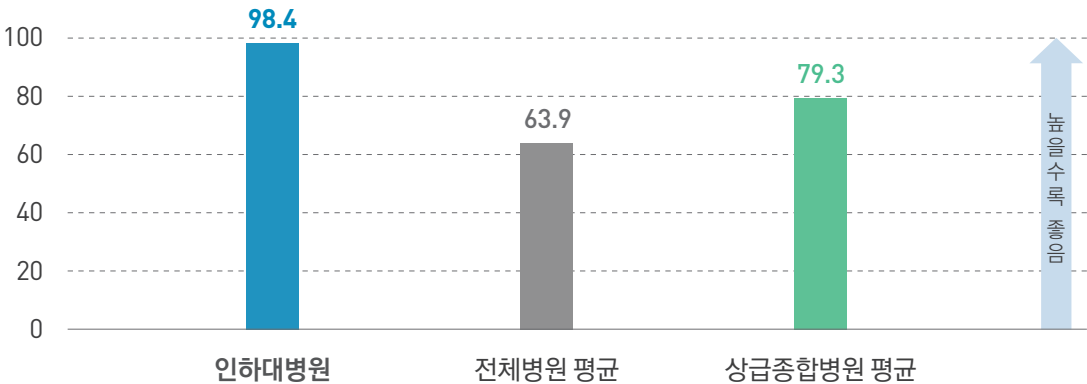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표결과

대상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3월

단위 : %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혹은 MRI와 같은 구조적 뇌영상 검사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뇌병소와 치매 원인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입니다.

인하대병원 치매 조기검진 클리닉에서는 병력청취, 신체 및 신경학적 검진, 정신상태평가, 우울증 여부 감별검사, 인지기능 검사, 뇌영상촬영, 임상병리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02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지표 설명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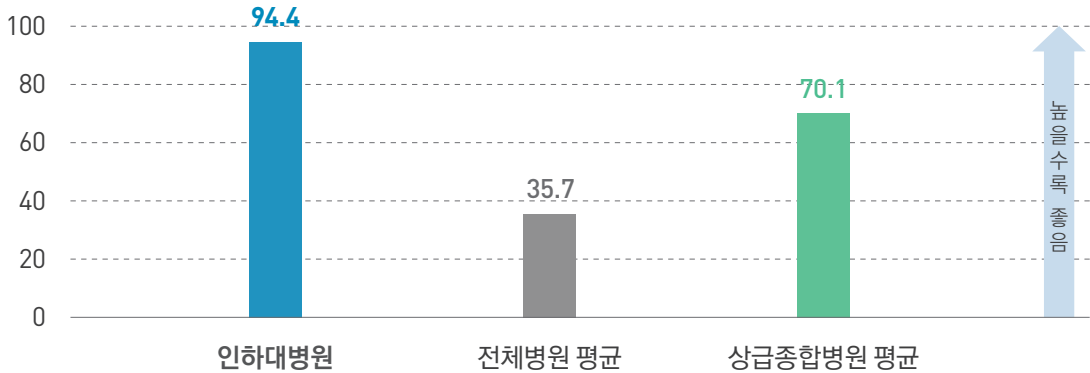
※ 27개 항목 : 일반혈액검사(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전해질검사(소듐, 칼륨, 염소, 총칼슘, 인), 신장기능검사(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총단백정량, 알부민, 총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제, AST(SGOT), ALT(SGPT)), 갑상선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유리싸이록신), 당검사(정량), 요산검사, 총콜레스테롤검사, 매독반응 검사[정밀], 엽산검사, 비타민B12검사



지표결과

대상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3월

단위: %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치매의 검사실 검사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치매의 일차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할 목적으로 시행하며, 공존 질환이나 합병증, 가능한 위험인자, 자주 반복되는 혼란 상태의 원인, 드물게는 치매의 일차적인 원인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혈액 검사는 필수적인 검사에 해당합니다.

03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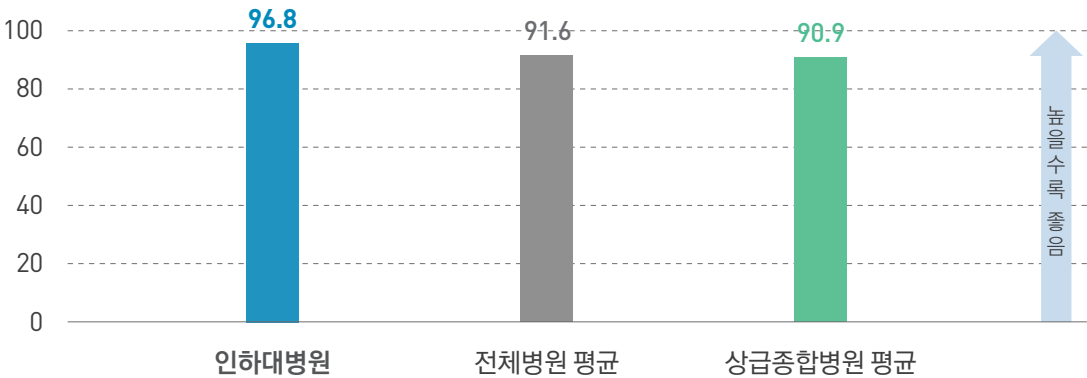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선별검사 및 척도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표결과

대상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3월

단위 : %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인지기능검사는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초기 진단에서 치매 환자에게 인지 기능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진단에 필요한 다발성 인지기능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인하대병원 치매 조기검진 클리닉에서는 병력청취, 신체 및 신경학적 검진, 정신상태평가, 우울증 여부 감별검사, 인지기능 검사, 뇌영상촬영, 임상병리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